

탑골 · 종묘공원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미* · 임승빈** · 엄봉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현재 도시 경관은 광장, 공원, 녹지 등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공간이 창조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도심 재개발, 장소 만들기 사업 및 각종 경관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민의 삶과 공간 구성원의 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그 내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그에 따른 현상을 읽어냄으로써 도시 경관에 대한 인간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으로 도시 구성원의 “주변인” 혹은 “소수자(minority)”로서 그들만의 장소를 형성하고, 장소의 이용과 이미지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과 분리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의 소수자 문화로서 형성되고 있는 두 공원의 현상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량적 연구로 도출되기 어려운 장소와 인간 간의 미묘한 상호 작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 장소에서의 특정문화와 그것에 의해 형성되는 심리적 요인의 함의를 논의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 해외 이주민 및 노동자의 증가 등, 향후 계속될 도시 구성원의 계층화와 이에 따른 소수집단들의 장소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장소의 물리적·활동적·정서적 고립과 같은 도시경관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사회·문화적 계층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에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문헌고찰

본 연구는 도시공간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들의 도시 공원의 이용과 그 심리적 요인 파악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Relph(1976)의 장소성의 형성요인 이론(물리적 환경, 인간활동, 의미)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소수집단과 이들의 배제에 관한 연구(박경환, 2008; 전영평, 2007) 및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박승진, 2003; 이강원,

2004, 이소령, 2000; 이인수·김인중, 1999; 한정훈, 2003; 荻野千尋, 1999)와 노인의 여가문화에 대한 문헌(곽효문, 2002; 함정혜·강선옥, 2008; 배지연 등, 2006)을 참고하였다. 또한, “특정 문화는 특정한 심리적 요인을 형성한다.”는 문화심리학적 이론을 적용하고,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Wundt 이래 Vygotsky, Mead 및 최근 Wikan(1990), Shweder(1996), Valsiner(1997), Ratner(1999)로 발전되어온 문화심리학의 이론을 고찰하고, 문화심리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연구의 분석 및 해석방법의 틀로 적용하였다¹⁾.

2. 관찰 및 인터뷰 조사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관찰 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지에서의 관찰 및 인터뷰는 2006년 11월, 2007년 5월, 2009년 1월, 2월, 6월, 7월, 8월, 9월 총 20회에 걸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 1. 조사 대상자

구분		응답자 수
탑골공원	노인	41
	공원 관리인	1
	젊은 방문객	4
	외국인	3
	주변상인	4
종묘공원	노인	35
	공원관리인	1
	주변상인	2

표 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관찰조사	· 공원 내 주요 행위 · 대상지 주변의 현상
인터뷰 조사	· 방문 목적 및 이유 · 공원 내 현상에 대한 생각 및 느낌 · 기타 노년기(노인)에 대한 의견

관찰 조사의 범위는 연구 대상지인 탑골·종묘공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연구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로 일대와 공원 주변의 상업시설도 포함하였다. 관찰 조사의 내용은 공원 이용자의 행태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 및 현상들을 기록하였으며, 탑골·종묘공원 주변의 상업시설 및 종로 일대에 대한 관찰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인터뷰 조사의 경우, 공원의 주 이용자인 노인 76명을 대상으로 공원 방문목적과 이유, 공원에서 주로하는 행위, 공원 내에서의 느낌과 생각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응답자가 허용하는 경우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밖에, 노인 이용자 외에도 젊은층의 방문객 및 외국인 관광객, 공원 관리자, 그리고 탑골·종묘공원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0분 정도의 짧은 답변에서부터 1시간 이상의 대화를 모두 포함하였다.

3. 인터뷰 내용 분석

수집된 인터뷰 내용은 문화심리학에서 활용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틀을 적용하여, 구술에서 나타나는 특정 의미 단위(meaning unit), 의미단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 및 종합(general theme) 분석을 거쳐, 종합적 개요(general summary)의 단계로 진행하여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다(표 3 참조). 또한 관찰 조사 결과는 인터뷰 내용과 함께 대상지의 장소 현상의 파악에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관찰조사 결과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 3, 4가에 위치하며, 수도권 전철 1, 3, 5호선이 만나는 종로3가역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무료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의 편리함과 높은 접근성으로 많은 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러나 탑골공원의 경우, 2001년 3월 '민족의 성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공원조성'을 위해 '탑골공원 성역화 작업'을 실행하면서 그간 공원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부적절한 행위(장기, 바둑 두기, 악기연주, 음주가무, 집회, 연설, 취미활동, 노숙, '신문지, 돗자리 등을 깔고 앉는 행위' 등)', 공원의 '불필요한 시설물(매점, 나무벤치)'을 제거하고, 상징물 관람을 중심으로 한 관람코스를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관람객의 이동로를 제외한 공간은 수목식재, 조형물 설치 등, 공원 내부의 여유 공간을 축소하는 설계로 변경시켰다. 그 결과, 새로운 공원 조성의 취지대로, "한바퀴 휙 둘러보고 나가는²⁾" 공간으로서의 변화와 함께

표 3.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tatement [meaning unit]	Central theme	General theme		General structure	General summary
Xxx [xxxxxxxx]	1	C.T. 1 C.T. 3	}	Gen. theme 1	Xx xxxx xxxxxxxx xx xxxxx.
Xxxx xxxxx xxxxxxxx [x] xxxx	2	C.T. 5			
xx [xxx xxxx xxxxxxxx] [Xxxx xxxx xxxxxxxx] [xxx]	3	C.T. 2	}	Gen. theme 2	Xxxx xxx xxxxxxxx x xxx.
	4	C.T. 4			
	5				
xxxxxxx [xxxx xxx xxxxxxx]	6	C.T. 6		Gen. theme 3	Xxxxxx xxxxxx xx xxx.

자료: Ratner, C., 2002: 172.

성역화 작업 이전 하루 2,000여명 이상의 노인 이용자 수의 대폭 감소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탑골공원의 이러한 행위 규제는 기존 공원 이용자들이 인근 종묘공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묘공원에서는 이전 탑골공원에서 행해지던 노인들의 여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묘공원의 이용자 수는 하루 2,000~3,000명으로 최근 하루 평균 50명 내·외의 탑골공원 이용자의 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묘공원 내 이용자의 주요 행위는 앉아서 이야기하기,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 노래하기, 술 마시기³⁾, 장기나 바둑두기, 정치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설과 그에 대한 의견 나누기, 각종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기, 붓글씨 쓰기와 같은 취미생활 등 다양하다. 종합적으로, 탑골공원 이용자들이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수의 종묘공원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 표출, 타인이나 놀이 및 행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종로를 이용하는 노인의 여가활동의 양상은 두 공원을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터뷰 조사 결과

1) 소외노인문화의 현상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공원을 찾는 이유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경제력이 없고 마땅한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노

인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탑골공원의 경우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급식을 제공받거나 공원의 담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저렴한 상업시설(식당, 이발소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고객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탑골·종묘공원 이용자들은 대부분 하루 용돈이 만원 이하로써 무료배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원 이용시간은 두 공원 평균 3~6시간 머문다는 응답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하루 종일 있다.”는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혼자서 공원 인근의 쪽방에서 거거하는 이용자였다.

결국, 공원에서의 소일하는 이유가 “돈 쓸 일이 없어서 좋기 때문”이거나, “저렴한 가격의 주변 상업시설의 이용할 수 있어서” 혹은, “말벗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라는 응답을 종합해 볼 때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의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심리적 요인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이용자들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를 코딩하여 분석한 결과는 지면의 허용범위 관계상 도출된 주제 및 의미단위,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축약 정리하였으며(표 4 참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들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인들의 행위나 노숙자 등의 쟁점에 대해 비난을 하지만, 그것과 동시

에 자신을 그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 성적인 차이에 따른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남자는 밖에서 활동하며,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을 지니고 있었다. 공원 이용자 간의 교류는 ‘말벗’의 수준으로 간주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가 되기는 힘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 비판적이며 신뢰감을 가지기 힘들고, 자신을 그들과 차별화함과 동시에 자신은 그들보다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인들은 나이들에 대해서 체념과 무기력함, 우울함, 위축, 소외감, 자괴감과 함께 노년의 처지에 대해 자조적인 심리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가 활동 면에서도 수동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물 및 환경을 포함하여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그것을 향수하며 되뇌이려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노인문화가 형성하는 또 다른 심리적 현상 중 하나는 남성 노인의 경우 집안에 머무르거나 실내에서의 시간을 매우 답답하게 여기며 공원과 같은 야외 공간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류의식을 느끼고 위안감을 얻는다는 견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호하며, 탑골공원보다 이용자 수가 현저히 많은 종묘공원이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반응으로서 공원 이용자들은 노인들에 대한 보

표 4. 공원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

주제	의미단위(Meaning unit)	심리적 요인
탑골공원 성역화에 대한 불만	[이 돌(벚치역할) 있지? 오래는 가겠지] [밖에 100원짜리 커피 자판기는 많지] [노인들 생각을 안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범 정해 가지고 맘대로 하라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그것도 차가운 돌 갖다놓고.. 치질이나 나지] [공원이 더 서먹해 진 것 같아요] [서글프네요] [이게 무슨 공원이야] [여기는 빈 손 같단 말이지]	· 자신들의 의견 반영이 안된 성역화 작업에 불만 · 냉소적
종묘공원 이용자에 대한 비난	[아무데나 오줌도 누고, 난리야] [그쪽은 시끄럽고] [저렇게 노는건 아니야] [우리같은 사람들은 안가] [지저분하지] [가관이지] [술을 먹고 헤롱헤롱 하면 안되지] [늙은 여자들 상대 안하지] [그 사람들은 한이 맺힌 사람들 이야] [거기는 억압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면, 흥분거요] [썸박질하는 늙은이들이 많아서 안가요]	· 종묘공원에 대한 비난 · 자신의 차별화
노년기의 태도	[다 귀찮고] [일할 때는 여기 안나왔지]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 [별 거 있겠어?] [세월이 지겹고, 죽기는 싫고, 돈은 없고] [사탕과자나 바라는거야] [다 손 놓은거야] [곧 두 내외밖에 안남아] [쓸쓸하다] [외롭다] [그건, 할 수 없어, 인생이라는게]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고] [우울증] [나도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든가 해야지] [누구 탓 할 것도 없어요] [하루 하루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늙은이를 어디서 쓰겠어] [돈이 없으니까 업신여기는 거지]	· 나이들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함 · 우울함, 위축 · 소외감, 자괴감 · 자조적
타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	[노숙자들이나 얻어먹지] [처량해 보여] [이상한 짓을 하고 가고 하니까] [우린 하루에 5천원 만원은 쓰지] [나와는 다르지] [나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도 많아] [다들 할일 없으니 앉아서 이리거나 있으니]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어야 하지] [십일조다 뭐다 해서 돈 뜯어가는 거라고] [얻어 먹는거에 대해서 습관] [빵 안주면 욕하고] [여기서 하는 말들은 다 믿으면 안돼] [그걸 어떻게 아나고]	· 자신의 차별화 · 타인에 대한 불신 및 부정적 시각 · 자신이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함
성별화된 공간개념	[따로 노는거야] [여자는 여자 공간이 있는 거지] [저희들끼리 놀아] [뭘하러 데리고 다녀] [남자는 외고, 여자는 안이고] [여자가 밖으로 자꾸 나가는건 안좋고] [혼자 다니는게 더 좋아요] [남자는 밖에 나가야 돼]	· 공간에 대한 성 역할의 차별적 인식

표 4. 계속

주제	의미단위(meaning unit)	심리적 요인
추억	[60년전 책을 가지고 다니지] [1936년도 꺼야] [젊었을때 롯데호텔 요리사] [옛날에는 정취가 있었어요] [예전의 그런 풍토가 있어야 돼] [옛날 추억하지] [나도 한때는] [늙어버리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간 얘기, 밥벌이 한 얘기] [6.25때 백두산도 갔다 왔지]	· 과거에 대한 집착
공원 이용의 이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혼자 있으면 몸이 괴로우니까] [집에 있으면 갑갑하니까] [집에 있으면 더 그냥.. 거시기 하잖아요?] [집에 처박혀 있는]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지]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단 말이야] [여러 노인들의 인생 얘기도 듣는 거야] [집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 백배 천배 좋은걸]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최고야] [(날씨가 추우면) 지하철 역에 가지] [못다 나눈 세상 이야기 나누며] [답답하고] [방안에 박혀] [비슷한 노인들하고 말동무] [다른 노인들하고 어울려서] [답답한 마음도 달래고 말동무나 찾을까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봐야 재미도 없어서]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좋지] [사람많은 댐 가야지] [사람 구경하는거지] [인천에는 여기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없거든] [말벗이 없고] [혼자 있는 것도 싫고] [사람구경] [외롭고] [고독함을 면할 수 있지]	· 옥외공간을 선호 · 동류의식(위안) ·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회에 대한 생각	[무슨... 나라가 희망이 있어? 딱 써버렸구만] [그러니, 언제 서민들이 힘 펴고 사냐고] [관이 전부 저모양이니] [정부에서 주는 교통비가 유일한 용돈] [얼마라도 올려주면 좋겠구만] [그깟 참전용사 뺏지가 맘 먹여 주냐?] [노인네들 먹고 살거나 좀 해결해 달라] [정부가 잘 못 하는거야] [노인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한달 4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다 죽으란 말이나] [이북에만 자꾸 갖다주지 말고] [불쌍한 한국 노인네들 생각도 해야지] [노인네들은 뉘전] [전부 젊은 사람들 위주] [갈테가 없어요]	· 정부 · 사회에 대한 비난과 반감 · 소외감
공원에서의 사교활동	[친구를 만들진 않지] [오랜 기간 만나야 친구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다 소용없어]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수준도 안 맞고] [진심으로 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서로) 모르는게 약이다] [과거는 서로 모른체] [하다못해 도둑질이라도 같이 했다 그래야 되지] [사귀게 되면 이용하려고 해] [얘기나 나누고, 그런 정도] [그저 그날 만나는 사람들] [말벗]	· 깊은 관계 형성 및 층들의 회피 · 경계심
가족과의 관계	[자식이나 며느리 눈치를 피해]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부모가 있으면 부담이 될 거 같고] [미안해지니까] [집에 있어봤자 며느리 눈치나 보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가 싫은] [결국 눈치가 보여서 여길 나오는 거지] [늙어서 자식 신세지긴 싫어!] [자식들한테 돈 타쓰기가 참 싫어요] [용돈을 안받지] [복지관이나 무료 배식하는데서 끼니 해결]	· 가족의 부담이 되기 싫어함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생각	[노인들을 거렁뱅이로 보면 안돼] [퇴물 취급 받게 싫어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받기 싫어] [(공짜로) 점심 드실 분들] [대부분 돈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야] [(종묘공원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야]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들] [여기 뭐 전부다 거저야] [조그만 일에도 욕을 하고] [한이 맺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해 방어적 · 스스로의 비하 · 노인에 대한 비난
노인의 경제적 계층화	[그러니까... 나이먹고... 경제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외국으로 간다, 지방간다 그런 여유가 되고, 그렇지 않고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데서 시간을 보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그나마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요] [돈이 있는 노인들은 모르겠지만] [문화시설이고 뭐고 그림의 떡] [돈이 없거나 옷차림이 허름해 보이면 왕따] [혼자 오는 노인들은 무료급식, 단체에서 나와서 주는 것도 쉽게 먹을 수가 없어] [결국 경제 문제죠, 돈이 없으니까]	· 경제적 계층화에 대한 위축감과 위화감
종묘공원의 선호 이유	[공원에 오면 자유롭고] [여긴 사람도 많고] [여기가 자유롭지] [다양하다고 하나?] [얘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람구경하면 재미도 있고] [여기만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가 없을걸] [여기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는 맛도 나고] [새로운 뭔가가 없나하고 두리번거리지]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 얘기, 저 얘기, 이 사람, 저 사람, 총 천연색] [가지각색이예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는 맛도 나고] [눈요기] [씨움 이 나도 그저 구경한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존심을 찾는 거지] [잃어버린 남자를 찾는 거지] [비슷한 연배 노인들끼리 만나서] [여기보다 더 좋은데가 없지 않아?] [눈치 볼 일도 없고, 다 똑같은 처지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도 늙은이들이라 서로 돕는다는 뜻에서] [다른 쪽은 다른 쪽 나름대로의 이야기로 모여들고]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서로간의 '하소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시는 분 있고, 자기가 살아온 얘기, 과거사 얘기도 하고] [차라도 한잔 빼서 얘기하고] [소주라도 한 잔 하시고] [이 할아버지는 83이고 나는 70이고.. 그러면 13년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그런 건 구분을 안뉘] [취기에 그러는거니까.] [노친네들이 그거밖에 더 할 수 있는게 뭐요.] [여기는 좀 활기가 있지] [젊은 사람들 보기에 난잡해 보이더라도]	· 자유로움 · 해방감 · 자기표현에 대한 만족감 · 동류의식 · 군중심리를 통한 행위의 합리화
젊은세대에 대한 인식	[잘난척하는 젊은것] [6.25를 아나] [옷도 훌렁 벗고들 다니는거나 뭐가 달라] [젊은것들은 또 불만들도 많아요] [우리때는] [늙은 사람들은 아주 개무시를 해요] [모든게 젊은이들 중심이잖아?] [지네들 세상인 줄 안다고] [젊은것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젊은이들이 버릇가르치려고 하는것처럼 보이거든]	· 비난과 반감 · 소외감

살림이 부족한 정부에 대해 분노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공원 이용의 주된 이유 중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정서적 부담감을 주기 싫어한다는 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공원에 나오는 노인들을 비하하

고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적임과 동시에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무기력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양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력에 의한 노인들의 계층화에 대해서는 위축감과 함께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종묘공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태 및 사건들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대화나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끼며, 가정이나 동네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로 인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생각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른 공간에 비해 많은 동년배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데 대한 동류의식과 그것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며, 공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나 자신감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 방어적이며 쉽게 분노하고, 자신을 포함한 종묘공원 이용자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하는 등, 양면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두 공원의 이용자들은 젊은 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며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특정 문화는 특정한 심리현상을 형성한다는 문화심리학적 이론으로 해석할 때, 한국의 소외계층 노인문화는 특히 가장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죄책감 등의 특정한 심리를 강하게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구성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공원을 이용하게 되며, '남자는 밖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과 같은 실내 시설보다는 야외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연령의 위계에 대해서도 민감하여, 노인정의 경우 70대 노인이 90대 노인의 수발을 듣거나, 연장자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 한국의 소외계층 노인들의 문화가 형성하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공간이 탐골·종묘공원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용자들 안에서 과거를 추억하며 동류의식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 특히, 종묘공원에서는 현재 자신들을 제약하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욕구가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탐골·종묘공원 이용자의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원은 경제적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의 모

임의 장소로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공원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을 뒤로 한 채 역사적 상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비계획 및 설계는 자칫 엘리트주의적 행정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일시적인 효과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의 노인의 문화적 특성과 그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여가공간으로서의 도시공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 1. 이들의 이론은 Rater(1999)의 Three Approaches to Cultural Psychology: A Critique, Cultural Dynamics vol. 11(1)을 기초로 하였음.
- 주 2. 탐골공원 인터뷰 대상자의 표현.
- 주 3. 2008년 이후 읍주에 대해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술을 마시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임.

인용문헌

1. 박효문(2002) 노인의 여가생활과 문화복지적 접근. 노인복지학연구. 가을호. pp. 27-48.
2. 박경환(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297-310.
3. 박승진(2003) 탐골공원의 문화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6): 1-16.
4. 배지연, 노병일, 광현근, 유현숙(2006)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통권 33호. pp. 7-28.
5. 이강원(2004) 담을 두른 공원 - 탐골공원을 통해 본 도시 공공 공간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석사학위논문.
6. 이소령(2000) 탐골공원의 노인 이용행태에 관한 해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인수, 김인중(1999) 탐골공원 방문노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 -동절기 관찰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pp. 195-219.
8. 전영평(2007)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13(2): 107-131.
9. 한정훈(2003) 탐골공원 조성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함정혜, 강선옥(2008)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와 노인여가의 개념.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2(5): 177-188.
11. 荻野千尋(1999) 탐골공원과 한국할아버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Ratner, Carl(1999) Three approaches to cultural psychology: A critique. Cultural Dynamics 11(1).
13. Ratner, C.(2002) Cultural Psychology - Theory and Method.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New York.
14. Relph, Edward(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15. Shweder, R.(1996) True Ethnography: The Role, The Law, and The Lure', in R. Jessor, A. Colby and R. Shweder(eds) Ethnography and Human Development.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Valsiner, J., A. Branco and C. Dantas(1997) 'Co-Construction of Human Development: Heterogeneity within Parental Belief Orientation', in J. Grusec and L. Kuczynski(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New York: Guilford.
17. Wikan, U.(1990) Managing Turbulent Hearts: A Balinese Formula for Living.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